

정의선 “변화를 통한 도약…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현대차그룹 회장)

현대차그룹 타운홀미팅 신년회
성공적 전동화 체제 전환 시작
글로벌 전기차 리더십 공고화
인재영입·투자 아끼지 않을 것
고객의 신뢰 최우선 가치 강조



현대자동차그룹은 3일 현대차·기아 남양연구소에서 타운홀 미팅 방식의 신년회를 개최했다. 신년회 자리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직원들과 셀카를 찍고 있는 모습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신년회에서 임직원들에게 ‘도전을 통한 신뢰’와 ‘변화를 통한 도약’을 주문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3일 현대차·기아 남양연구소에서 진행된 타운홀 미팅 방식의 신년회에서 “2023년을 ‘도전을 통한 신뢰와 변화를 위한 도약의 한해’로 삼아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려 한다”며 새해 경영 화두를 제시했다.

올해 신년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20년 1월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됐으며, 정의선 회장을 비롯해 장재훈 현대차 사장, 송호성 기아 사장, 박정국 연구개발본부 사장, 송창현 Taas본부 및 차량SW담당 사장이 직원들과 마주하고 2023년 새해 메시지와 사업 방향성 및 비전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직원들의 질의에 구체적으로 답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했다.

정 회장은 “코로나 여파에 금리와 물가가 상승하고 환율 변동폭이 커졌을 뿐 아니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해지며 경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다가

오는 위기를 두려워하며 변화를 뒤쫓기보다 한 발 앞서 미래를 이끌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기반으로 한 아이오닉5와 EV6가 각각 ‘세계 올해의 차’와 ‘유럽 올해의 차’를 수상하고, 현대차그룹이 글로벌 전기차 판매 5위권에 진입한 사실을 거론하며 “성공적인 전동화 체제로의 전환을 시작했다”고 자평했다.

정 회장은 “올해도 더 진화된 차량을 개발하고 공급해 글로벌 전기차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전동화 체제 전환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룹이 추진하는 소프트웨

어 중심 자동차(SDV)로 전환과 관련해 “연구개발을 비롯한 회사 전반 시스템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완벽한 SDV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신사업 영역 새해 구상도 공개했다. 이를 위해 정의선 회장은 먼저 ‘도전을 통한 신뢰’ 구축을 위해 ▲전동화 ▲소프트웨어 ▲신사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끊임없이 도전할 것을 강조하며 “시장을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 최고의 인재를 영입하고 기술을 개발하는데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

고 밝혔다.

그는 자율주행 분야에서 고속도로 자율주행(레벨3)이 가능한 차량을 국내에 출시하고, 북미에서는 완전자율주행 수준인 레벨4 기술이 탑재된 로보택시를 상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상반기 레벨3 수준의 고속도로 자율주행 기능인 ‘HDP’를 탑재한 G90, EV9을 국내에 선보인다. 이와 함께 모셔널(Motional)을 통해 미국에서 우버(Uber) 등 차량공유 기업과 손잡고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는 레벨4 아이오닉 5 로보택시 서비스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정 회장은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사람과 사물의 이동 목적에 부합하는 목적기반차량(PBV)을 본격적으로 시장에 선보이고, 항공이동수단인 미래항공 모빌리티(AAM) 프로토타입 기체도 개발해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자로서 리더십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로보틱스 분야에서도 인류의 복지와 편의를 지원하는 인간 친화적 제품 공급의 밸류체인을 완성해 나가고, 소형원자로(SMR) 같은 에너지 신사업 분야로 확장을 추진하면서 초고강도 철강제품 개발, 스마트 물류 솔루션 육성 등에도 힘을 쏟아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내놴다.

정 회장은 상품 기획과 설계부터 생산, 판매,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고객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뒀어 한다고 강조하며 “‘품질과 안전’이라는 기본적인 약속을 지켜나갈 때 고객이 우리를 믿고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기꺼이 함께해 주실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양한 사회공헌과 적극적 소통, 투명한 경영활동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계속해서 변화하는 능동적인 기업문화 조성에 나서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정 회장은 “나와 경영진부터 솔선수범해 자유롭게 일하는 기업문화, 능력이 존중받는 일터, 원칙과 상식이 바로 서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세액공제 확대’로 반도체 산업 생태계 튼튼해 질 것”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 ‘대환영’
경제단체도 ‘경제극복 단초’ 기대

반도체 세액 공제 비율이 다시 상향 조정되면서 환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KSIA)는 3일 ‘세액공제 상향 관련 반도체업계 환영 입장문’을 발표했다.

KSIA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등 국가 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추가 확대’에 대해 환영한다며 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조치가 글로벌 반도체 경쟁 속 국내 업계에 큰 힘이 되고,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튼튼하게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반도체 업계도 사명감으로 글로벌 선도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액 공제 상향 입법이 빠른 시일 내에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도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디스플레이업계도 뜻을 같이 했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도 같은 날 ‘세액공제율 확대 대환영!’이라는 제목으로 입장을 냈다. 중국과 경쟁이 치열해지는 디스플레이업계에서는 더욱 환영할 일이라며, 디스플레이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는 입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신속한 투자를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지원 확대 정책으로 디스플레이

업계는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 최초 IT용 8세대 OLED를 포함한 신규 투자와 함께, 소부장 국산화율이 높은 업종 특성상 국내 산업 생태계도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제단체들도 앞다퉀 환영을 전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기업 투자 의지가 꺾일 수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며 글로벌 초격차 확보 뿐 아니라 소부장 생태계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했다. 순조롭게 입법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 협력을 당부하며 신산업 투자 규제 해소에도 힘을 모아달라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적극적인 환영

뜻을 표하며, 국가전략 첨단 분야 기업 투자 유인을 높여 우리 산업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번 지원안이 유례없는 경제상황을 극복할 단초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특히 시설투자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에 세액 공제율을 확대한 것은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에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세제지원 법안을 원활하게 통과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중소기업계도 기술개발 및 시설투자 확대 등으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재용 기자 juk@

SKC산업소재사업부가 분할되어 신설된 SKC미래소재와 자회사인 SKC하이테크앤마켓팅이 ‘SK마이크로웍스(microworks)’와 ‘SK마이크로웍스솔루션즈(microworks solutions)’로 사명을 변경하고 글로벌 소재 전문기업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SKC미래소재는 국내 최초로 PET 필름을 개발한 SKC의 모태사업으로, 1976년 폴리에스터 필름 상용화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필름소재(폴리이미드, 친환경 등)를 개발·사업화하고 있다. SKC하이테크앤마켓팅은 필름·소재 가공을 통해 모바일, 디스플레이(TV), IT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적용되는 미래 소재 가공 기술을 기반으로 소재 산업을 리딩하고 있다.

사모펀드(PEF) 운영사 한앤컴퍼니(대표이사 한상원)가 지난해 12월 인수를 완료한 SKC미래소재와 SKC하이테크앤마켓팅은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승인된 새로운 사명을 발표하고 미래 소재와 친환경 필름 소재를 핵심 사업으로 하는 글로벌 소재 전문기업으로 본격적인 사업 확대에 나선다고 밝혔다. /허정운 기자 zelkova@

SK네트웍스, 에스에스차저 품고 전기차충전 사업 본격화

국내 최대 급속충전기 운영사 인수
SK렌터카와 모빌리티 사업 주도

SK네트웍스가 에스에스차저를 품에 안으며 모빌리티 역량을 대폭 강화했다.

SK네트웍스는 최근 에스에스차저 인수 작업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에스에스차저는 국내 최대 급속충전기 운영 기업으로, 1650대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운영 중이며 상반기까지 고속도로 휴게소와 도심 150곳에 집중형 초급속 충전기를 추가 구축하며 사업 확대할 예정이다. 업계 최초 구독형 멤버십 ‘택키패스’ 출시 등 차별적인 경쟁력도 갖췄다.

SK네트웍스는 친환경 모빌리티 사업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에스에스차저 인수를 결정했다. SK렌터카와 함께 모빌리티 사업을 주도할 전망, 지난해 투

자한 완속 충전 업체 ‘에버온’과 시너지도 기대된다.

에스에스차저는 SK네트웍스 기획실장 출신 조형기 대표를 선임했다. 에스에스차저의 사업 전문 역량이 전략과 투자가 어우러진 성장 계획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형기 대표는 “파트너사들의 전문 역량을 살린 협력 경영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장을 주도해 에스에스차저

의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과 연관된 새로운 기회 모색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조만간 새롭게 출발하는 기업의 가치를 담은 신규 사명을 만들어 고객에게 알리고, 앞선 기술과 서비스로 고객 편의를 책임지는 전기차 충전업계 No.1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